



강북구의회
GANGBUK DISTRICT COUNCIL

의정활동보도

2019년 2월 11일
(월요일)

북부신문 5면

“보조금 인상률 2.8%로는 현실 반영 안 돼”

강북구의회, 정부·국회에 아동센터 제도개선 촉구



▲ 최미경 의원이 지역아동센터 지원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제언을 하고 있다.

강북구의회가 지역아동센터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중앙정부와 국회에 예산 반영과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.

이와 관련 강북구의회는 “정부와 국

회는 지역아동센터의 아동 프로그램비용의 부족분을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하고 불합리한 운영비 지원 제도는 개선이 필요하다.”며 관련 건의안을 제222회 임시회에서 채택했다.

제안자 최미경 의원은 “지역아동센터의 2019년 정부지원 기본운영보조금 인상률은 최저임금 인상률이 10.9%임에도 2.8%에 불과하다.”며, “인건비, 관리운영비, 아동프로그램비가 하나로 구성된 기본운영비 성격상 종사자의 인상된 최저임금과 관리운영비를 제하면 아동 프로그램 비는 당연히 줄어들 수밖에 없다.”고 지적했다.

그럼에도 기본운영비 지원예산 인상률이 2.8%에 그친 것은 신규 지역아동센터의 자연증가만 고려해 단순 물가인상률을 적용해 현실과 동떨어진다는 설명이다.

최 의원은 “아동 보호를 위해 올해 기본운영비 지원 예산 중 아동 프로그램비가 부족한 현실을 반영해 추가경정예산을 조속히 편성해야 한다.”며 정부와 국회의 대책을 촉구하고, “이는 기본운영비 지원이 인건비, 관리운영비, 프로그램비로 분리되지 않고 혼재돼 발생하는 문제”라며 제도 개선도 주문했다.